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물수들 속에 섞인 것 같다. 어진 사람과 함께하기 즐겁습니다. 마치 진흙속에 섞인 것 같다.  
(法句經·안락품 207절)

제 1134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1955. 10. 13 제3종우편물(7)급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3년(단기4326년) 10월20일 (수요일) [ 1 ]

## 경부 고속전철 경주캠 인접통과 저지운동 활발

### 국정감사 자료제공하는 한편 자체환경평가 진행

경부고속전철등 정부의 국책사업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전철 경주캠 인접통과 저지를 위한 학교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미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과 교통부등에 진정서를 통해 의견을 제기한 바 있는 학교당국은 이번 국정감사기간에 교통·건설관련 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고속전철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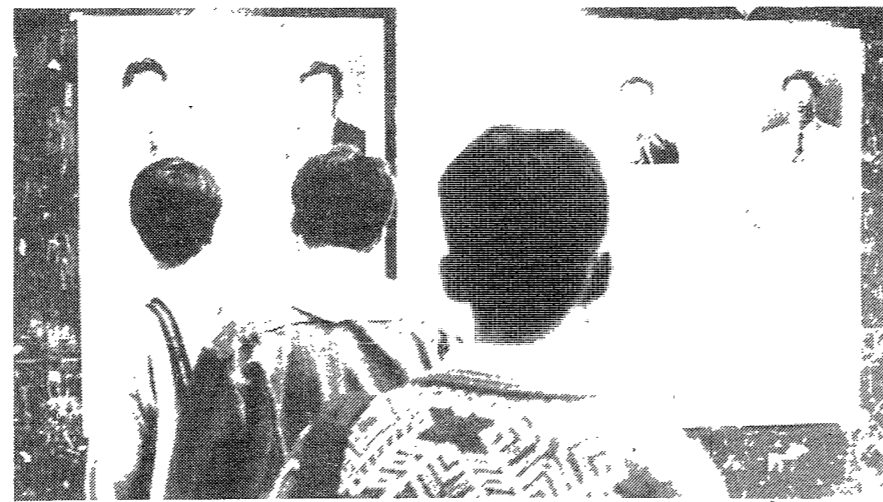
또한 현재 경주캠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험실습기재와 의뢰기재에 대한 영향평가 실험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정감사에서 고속전철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국회의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정정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향평가 실험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의 결과를 가지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 관련기관에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기본노선보다 10킬로미터 정도 공사 구간이 길어짐에 따라 1천여억

정도의 추가 경비소요가 예상되고 학교와 35킬로미터 구간에서 방벽을 설치할 경우 1천억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당국은 "예산이 더 소모될 것"이라며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비호노선 주장을 비난했다.

한편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전자파장애에 대해 국내 모연구기관에 영향평가를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학교당국의 지난달 9일 최종공문에 대한 공식적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 오늘(20일) 총대의원회 투표를 시작으로 각 자치기구선거가 치뤄진다.

### 정원의 특례입학 전형 오는 12월9일 시험

94학년도 정원의 특례입학 전형일이 12월 9일로 확정됐다.

외국인, 해외교포 자녀, 외교관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의 특례입학의 원시접수는 11월29일부터 12월3일까지 진행되며 12월 9일에는 스팀시험(국어·수학)이 실시된다. 실기 등의 시험이 치뤄지며 면접고사도 치뤄지게 된다.

## 제1회 청년만해강좌 개설 이문옥·김근태씨등 강사로 초빙

학생처(처장=노완섭·식품공학과)는 제25대 총학생회(회장=최순호·국교4)와 공동으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의 제1회 청년만해강좌를 오는 27일과 11월 3일 오후3시 중앙당에서 개최한다.

첫째날인 27일에는 이문옥 전국불교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초청해 '정의의 실천과 인권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진행하며 11월 3일에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한국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근태 국민회의 전진행위팀장이 강연회를 갖는다.

이에 대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대학문화와 정서교육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하고 "내년부턴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달 3~4명의 강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 단과대 학생회 선거전 치열 등록마감...4곳 단독 입후보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고 18일 후보자공고가 부착되면서 각 후보간의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되고 있다.

9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정부·회장 입후보자 명단

단과대	정 부	회 장	비고
총대의원회	정 태경민(철4)	정 태경민(철4)	
불교대	정 최정현(인철3)	정 최정현(인철3)	단독
문과대	정 박우영(영문3)	정 박우영(영문3)	
이과대	정 김태현(통계3)	정 김태현(통계3)	
법과대	정 조영학(법3)	정 조영학(법3)	
사회과학대	정 김경태(행정3)	정 김경태(행정3)	
경상대	정 이경원(경정3)	정 이경원(경정3)	
농과대	정 김용민(농정3)	정 김용민(농정3)	
공과대	정 박성우(산공3)	정 박성우(산공3)	단독
사범대	정 안진우(국교4)	정 안진우(국교4)	
예술대	정 이종필(미술3)	정 이종필(미술3)	단독
야간강좌	정 최우현(영문2)	정 최우현(영문2)	단독
통합회	정 조영학(법3)	정 조영학(법3)	

### '대학소식' 발행

공공부(부장=이병계)는 지난 17일 학교홍보지 '대학소식'을 발행했다.

교수, 동문, 재학생, 수험생에서 일선교사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이야기를 담은 이번호는 모두 3만부 가 발행되었으며 수험생들을 주대상으로 배포해 학교 홍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호로 12호를 맞는 '대학소식'은 지난 87년 같은 호의 소식지로는 국내대학들 중 처음으로 나온 바 있다.

### 대학원 학생회 세미나 개최

제1회 대학원 학생회(회장=최재우·사회학) 세미나가 지난 17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중앙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재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최재우 회장이 '대학원 학생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재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최재우 회장이 '대학원 학생회'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 보수

실의산에는 가을이 유난히 빨리 온다. 10월 초가 되면 벌써 대청봉에서 단풍이 들기 시작하여 이내 온산이 붉게 타오른다. 그리고 한달여가 지나면 화려한 세월을 이미 끝내버린 산은 앙상한 모습으로 겨울을 맞이한다.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서 흐르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산을 보고 있으면 여름 눈으로 확인된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산처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도 없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어김없이 바뀌어가는 산색(山色)의 변화는 부처님이 가르친 제행무상(諸行無常)의 현실적 모습이다. 그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돌러놓을 수 없다. 헤라클레스의 말처럼 한번 발을 씻은 강물에 두번 발을 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행무상의 이치를 가르친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무성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삶은 무엇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일상 생활이 시계바늘처럼 정확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동네사람들은 그가 산보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알았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이를 '칸트타임'이라고 했다. 어느날은 취침 시간이 빠르다고 침대주변을 사정거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반대로 프로이트는 코카인의 효용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한달에 한번만 만나기로 한 약혼자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5년뒤 그녀가 생각나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보았더니 약혼녀는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이 두가지 상반된 에피소드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칸트와 프로이트는 방법을 다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어찌 칸트나 프로이트 뿐이겠는가. 인생에서 남보다 높은 봉우리에 오른 사람치고 시간을 소중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간을 허송하고 결과만 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벌써 가을이다. 올해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다. 洪 忠 誠

### 시간의 소중함

할 수 없고, 돌러놓을 수 없다. 헤라클레스의 말처럼 한번 발을 씻은 강물에 두번 발을 씻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행무상의 이치를 가르친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무성한 인생에서 유의미한 삶은 무엇인가.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일상 생활이 시계바늘처럼 정확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동네사람들은 그가 산보하는 것을 보고 시간을 알았을 정도였다. 사람들은 이를 '칸트타임'이라고 했다. 어느날은 취침 시간이 빠르다고 침대주변을 사정거리기까지 했다고 한다. 반대로 프로이트는 코카인의 효용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한달에 한번만 만나기로 한 약혼자와의 약속을 잊어버렸다고 한다. 5년뒤 그녀가 생각나 만나기로 한 장소에 나가보았더니 약혼녀는 이미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대한 이 두가지 상반된 에피소드에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칸트와 프로이트는 방법을 다르지만 주어진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활용했다는 사실이다. 어찌 칸트나 프로이트 뿐이겠는가. 인생에서 남보다 높은 봉우리에 오른 사람치고 시간을 소중하게 보지 않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시간을 허송하고 결과만 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벌써 가을이다. 올해 나는 나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다. 洪 忠 誠

## 체육부 전국체전서 입상 농구·레슬링등 메달 획득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평주에서 열렸던 제74회 전국체전에 본교 농구부(감독=정주대)는 김우근(무역3), 이재욱(경영1), 김연준(경찰청3)은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사격부는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사인원(관정4)은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프로만형 52kg급에 이영성(경영2)은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한 최동진(체교4)은 은메달을 김우근(무역3), 이재욱(경영1), 김연준(경찰청3)은 은메달을 추가했다.

또한 사격부는 공기소총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고 사인원(관정4)은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했다.

### 21世紀, 통신혁명 新世紀

## 無限의 젊음으로 無限의 미래를...

주최: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  
후원: 중앙일보사, 한국경영학회, 한국통신학회

### 제1회 전국 대학(원)생 무선통신산업(기술, 경영)논문 현상공모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은 통신산업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무선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조치로 전국 대학(원)생들의 참신한 학술논문을 모집합니다.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은 미래 정보화 사회의 주축이 될 전국 대학(원)생들에게 무선통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보다 질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반을 구축, 국내 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무선통신 논문"을 현상 공모합니다.

#### 응모/요강

- 참가대상: 전국 대학(원)생 및 대학원 재학생 (전공불문)
- 응모기간: '94. 1. 15까지
- 응모주제: 2개 분야(1개 분야를 택함)
  - 무선통신 관련 정책, 경영, 마케팅 등 일반분야
  - 정책, 경제, 기술, 경영, 마케팅, 교육, 마케팅, 기술, 경영, 기술 등 일반분야
- 응모요령:
  - 산기 응모주제를 벗어날 수 없는 분야를 임의로 선택 가능
  - 4쪽 이내의 분량으로 워드프로세서 이용 작성 제출(마주제에 없으면 한글자나 워드프로세서 표시된 리포트 형식은 사불용)
- 사양서:
  - 제1차 시상: 1명 (인원수) 시 상 내 역 비 고
  - 최우수상: 1명 (상금 500만원) 분야별
  - 우수상: 2명 (상금 300만원) 각 분야별
  - 가작: 7명 (상금 100만원) 각 분야별
  - 입선: 20명 (상금 30만원) 각 분야별
- 응모지:
  - 입선지:
    - 무수상 이상에게는 이력 등 신원조사 정보통신업계를 인사하는 기업을 제공하고 포항제철 및 계열사 인사팀에서 서류심사 및 발표준비 및 개최
    - 가작은 서류심사 면제

### 포항제철 신세기이동통신

# '꽃다지'공연, 노동법 살피는 기회 현실적인 개혁 이뤄져야

지난 14일 가습설레이는 마음으로 문무관에서 노래판국 '꽃다지'공연을 온방울 학우와 경주지역 노동자들과 함께 지켜보았다. 공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여준 것은 지주적 단결권 쟁취를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이었다.

반마당인 제1마당 '신한국 개혁 행진' 현정부의 눈치를 보며 등장하는 자본가 부리들의 행태들이 잘 묘사되었다.

2마당 '임금들의 합창과 허깨비춤' 노동자들의 일상적인 노동과 삶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사람이 태어나' '절의 노동자' 등의 노래가 합창되었다. 온방울학우와 노동자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민주노조 깃발 아래 와서 모여 통치자의 노래 가사를 힘차게 외치며 으름장을 높이들어 단결권 쟁취를 외쳤다. 우리가 못쳐서 하나가 된다면 그 힘이 얼마나 커질까? 단결권 쟁취를 향한 결의마당 노동법 개정 투쟁을 조직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결의문과 합

계 93년 노동법 개정 투쟁으로 힘찬 출진이 이루어지며 공연은 끝났다. 그리고 꽃다지 공연을 계기로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정되어야 할 노동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2항의 제3차 개정규정 조항과 위헌행위 위헌제정규정 같은 법제45조 2항은 수권성(授權性)이 결여된 1980년의 이른바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노동관계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마련된 조항들이었던데 그 내용이 있어서도 앞서 실시한 바와 같은 헌법이념과 정의감정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법률이어서 국민적 합의의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당무원 단결권 금지조항'은 헌법제35조 2항에 의해 노동3권이 엄연히 보장되어 있는데도 정의를 박탈하는 것은 개정헌법에 따른 노동쟁의조정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위법 조항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당초 정부는 이러한 노동법을 개정하여 노사관계의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도모 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지난 8월24일 대통령 공약사항인 노동관계법 연내 개정은 '큰 국면의 고봉분담을 바탕으로 경제 전반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노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내내 적절한 시기로 연기 한다고 발표

했다. 이것은 현정권이 노동자를 고봉분담의 도구로 이용하여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 하는 정권임을 여실히 드러낸 것은 아닐까.

이제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자와 함께 노동법개정 투쟁을 통한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추체로서 진보적이고 평등한 사회실현의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필중  
(법정대 야구법과)

**일린글터**

독자 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받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문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661)770-2057

## 운영상 문제로 중병 앓는 고시학사

저금 계산고시학사는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누락되어온 운영상의 문제와 원고시한 책임자의 공적으로(사감보, 지도교

수) 조속하고도 명쾌한 해결과 더불어 고시반의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방안을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94년도 외부고시, 사법고시 1차시험이 몇개월 남지 않았고, 매년 4-5월에 실시되었던 1차시험이 2월초순경으로 앞당겨 졌다. 이렇게 일정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고시특강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고시특강은 7.8월경에 이미 거의 모든 타대학에서 실시했다.

둘째, 전입사감보의 임무해태 시에 조교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실상 조교는 권한이 없었으며 더우기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고시특강은 임무도 못보고 있으며, 현재 고시반 비지도서까지 고시교사가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고시반의 모든 시설물

은 노후되어 있으며, 그나마 관리의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함과 아울러 앞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와 관리를 위해서는 지도교수와 사감보의 선임이 급박하다. 관례에 의하면 사실상 지도교수는 고시학사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사감보가 실무를 담당하여 온 실정인데, 사감보의 공적으로 인하여 외전수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고시공부에 필요한 분위기 조성과 절대적 시간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고시학사의 행정체계를 위한 관리자의 조속한 임명을 당부드린다.

마지막으로 고시학사의 위치상 소용문제가 또한 고민거리로서 학생들이 야간에 고정방학 하는 일을 자체해 주기 바란다. (계산고시학사 고시반원일동)

## 오늘을 사는 동국인 — 미당 서정주



미당(未堂) 서정주. 이름 석자만으로도 설명이 필요없는 문인이다. 1906년 본교의 모체인 중앙보통학교에서 수학하고 동아일보 신춘문예에서 '백'이라는 시로 당선된 문단에 데뷔한 이래 '국화'에서 '푸르른 날' '문득' 등 지금까지 1천여작품을 발표해 한국문학계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또한 시인으로서만 아니라 본교에서 25년여동안 교편을 잡고 문리대 학장을 지내는 등 교육자로서도 한몫을 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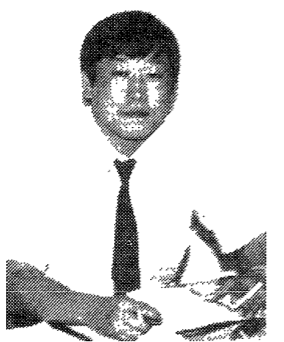
이러한 미당의 경력 뒤로 보이지 않게 뒤따르는 것이 있다. 바로 '원일교' 소학교 시절 일본유학선생으로부터 동요는 법을 배워 '시'란 것에 접하게 된 후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미당에게 있어 일제시대 암울한 사회속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던지도 모른다. "나는 친일파였다"고 밝히며 과거를 반성하는 서정주 시인의 열요모습을 보며 미당 이전의 호 '당발(堂發)'의 뜻을 생각해 본다.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풀이 없다는...

"국립학교 아이들의 소리가 오히려 약이요" 김강 김치를 7-8년 정성들여 썼는 모습에 끌려다녔던 인연을 맺은 부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자택은 명상하기엔 좋지만 적적하다는 듯 미당은 미소를 짓는다.

졸업후 어디에 있더라도 20C 인류가 맑고 바른 정신을 회복해 가는데 앞장서며 동국후배들에게 당부의 말을 남긴다. 아직 아니지만 완숙함을 추구하라는 미당(未堂)의 뜻을 새기며...

대문앞 한구름 소나무의 지주를 등지고 서정주 시인은 자신의 절필필로 발걸음을 옮긴다. (곽주영 기자)

## 동문/칼럼



정운한  
(쌍용엔지니어링(주) 인사과장-법학과7졸)

프랑스 유머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시골농부가 어느날 커다란 수박을 보고 조물주의 능원에 대해 갑자기 의심을 품는다. 어찌서 커다란 나무에는 도토리 같은 작은 열매가 달리고, 작은나무에는 반대로 수박같은 큰 열매가 열리는가? 아무래도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다. 농부는 한양동산의 이 문제를 놓고 관리하다가 좋은이 오자 큰 캄바루 그늘에 누워 낮잠을 잔다. 그때 마침 바람이 불어 도토리 하나가 그의 이마 위로 떨어졌다. 껍질과 열이 아닌 농부는 무릎을 치며 이렇게 소리쳤다. "그러면 그렇

## 진리를 소신있게 말하라

지, 역시 조물주는 현명하시다. 도토리가 작았기 말이지, 만약 수박이 캄바루에 매달려 있었다면 대체 내 이마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내 이마의 안전을 위해서도 큰 나무에는 작은 열매가 달리고, 작은 나무에는 수박같은 큰 열매가 열려야 한다. 어찌서냐 나는 그 이치를 깨달았노라!

우리는 이유며 속에서 그 농부의 우매함에 웃음을 터뜨린다. 시골농부다운 단순한 사고방식으로 재미있지만 그보다도 이 세상 질서의 엄격한 진리를 어느 한순간에 자신을

은 골레를 씌워놓고 있다. 이 골레들은 크게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가정이 요구하는 인간,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르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가지도 제대로 완수(完遂) 못한 채 그저 끊임없는 관심과 고민속에서 시간만 보내거나 이에 자포자기한 채 있고 싶은 생각속에서 되는대로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후의 마음의 고통으로 더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원

인이요는 이러한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각기 분리되어 서로 다른 입장을 형성하고 있기에 각 부분이 요구하는 인간상(象)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로써 더욱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현실사회에서의 개인적 노력은 곧 한계에 다다라서 그때그때의 이익과 내가 처한 주변사회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기응변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기도 하여 세상살아가는 기술을 자연히 숙달시켜 버린다. 이것이 명분있으면서도 무기력화(無力化)되고 있는 현대인의 처사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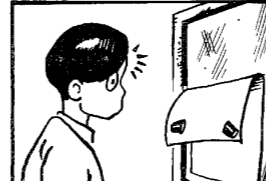
이러한 현실의 기성(既成) 조직은 그래도 진리를 소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고 기성원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력사원보다는 그래도 살아남아가는 보편적 흥기는 신인사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어

## 잠깐만!

6월13일(화) 08:00. 9월 한달동안 동아에서 나온 쓰레기량이다. 이틀에 한번꼴로 쓰레기를 가져오는 11톤트럭이 학교를 떠나 경기도 김포로 갈 수 도면 매립지를 향한다. 교통체증을 피해 밧집산 후에 매립지에 도착하면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매립지에는 매립을 허가받은 수 있는 곳도 많지만 프랑스 유머 속의 주인공이 요즘의 내가 되어갈 조물주 고민속에서 시간만 보내거나 이에 자포자기한 채 있고 싶은 생각속에서 되는대로 편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정신적, 육체적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 후의 마음의 고통으로 더 우리를 무력하게 하는 원인이요는 이러한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제각기 분리되어 서로 다른 입장을 형성하고 있기에 각 부분이 요구하는 인간상(象)은 서로 상충되는 경우로써 더욱 난처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 현실사회에서의 개인적 노력은 곧 한계에 다다라서 그때그때의 이익과 내가 처한 주변사회의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임기응변적인 행동을 취하게 하기도 하여 세상살아가는 기술을 자연히 숙달시켜 버린다. 이것이 명분있으면서도 무기력화(無力化)되고 있는 현대인의 처사상이다.

## 소대 만화

허진  
(예술대 미술학과)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역사 바로잡기 일환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어보면 '러시아는 어디로', 사실에서 다른 고수전철 문제, 시사문제를 다룬 영화평, 그리고 우리들 바르르 뜨는 다양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중 10월항쟁의 재조명은 상당히 주목할 만 했다. 해방기

## 10월항쟁 재조명 눈길 끌어

전후의 비뚤어진 역사인식에 대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역사는 바로잡는 것 그것은 민족이 걸어갈 길에 대한 올바른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학원자주화' 주장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부분은 5년간의 학원자주화 투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의 흐름에 의해 재단학원 투쟁의 중요사실들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또한 계속 연재되고 있는 컴퓨터 이야기, 현재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학생회 차기투 선거일정 공시등 우리 일만 학우들의 삶이 있는 학원에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잘 그려내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역할의 해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런 글이 동대신문이 아니라 독자들에게 있다고 보여진다. 신문은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들에게 올바른 답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학원자주화' 주장의 평가와 전망이라는 부분은 5년간의 학원자주화 투쟁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의 흐름에 의해 재단학원 투쟁의 중요사실들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명한 진로와 구체적인 전망은 예견되고 있지 못함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으로 보인다.

이제 읽는 독자인 우리는 동대신문을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과정에 노정된 한계와 진행방식의 오류를 지적해냈으며, 한편 을 재단학원 투쟁이 가지는 의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키는 내용이 충실히 담겨 있었다. 또한 재단학원 투쟁의 길은 현재 진행중이라는 관점은 을 학원자주화투쟁을 내내 그후까지 계속 혁신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5년간 학자-투의 성과와 전망을 일정정도 밝혀낸 것 같다. 그러나 이후의 분

한 의사와 약사의 한약조제권에 대한 시비는 약 8개월에 걸쳐 많은 사회적 물의와 회생을 낳게 되었다.

세계교육사상 유례 없는 4년제명의 유급생이 생기고 교수 학장 총장이 사표를 내고 학생들은 진로를 잃게 되었다.

지금까지 보사부와 정부 당국은 한의사와 약사의 조제권 문제를 단순한 업권단체의 이기주의에 의하여 발생하는 분쟁이라고 규정짓고, 양 단체의 합거투기 상태를 관망하면서 국민 보건의 백내대계를 위한 사정 차원이 아닌 사회적 병태현상을 일시 미봉책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한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고루 이익과 책임을 주어 무마시키려는 태도는 다시 있어서는 안될 행정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히려 양자 모두에게 문제점을 갖게하여 계속 새로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회적 혼란을 더욱 심화시키는 분쟁의 본질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양자의 이해가 고조되면서 보사부와 경실련이 제시한 내용은 한의약의 전문성과 사실 내용을 이해하지 않은 단지 현실적 한약 분쟁을 사회적으로 적당히 해결하려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의사협회도 성급하게 내용은 대안 중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좀더 학계의 전문가에 의해서 계속 개선, 검토,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의약이란 유구한 전통 역사와 역경을 겪으면서 자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단순한 정책이나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대하여 그렇게 쉽게 말살되거나 또는 변질되는 학문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학문의 윤리적 전통성을 존중하고 한의업계의 국민이 바라는 방향에서 필요성에 알맞게 친절한 연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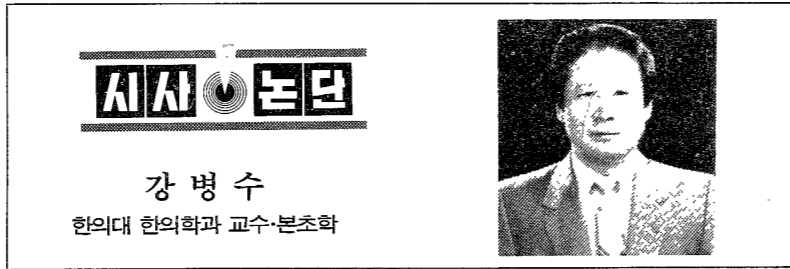
특히 한의약은 현대 의학의 발전 과정과 사회적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현대 의학과 같이 당장 분업화가 그렇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한 분업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다.

한의약이란 학문의 내용이 종합적이고 또한 약제의 생산이 대자연에서 산출되므로 인공이라든가 누구나 먹고 취급할 수 있는 약이 한약이다.

단순한 현대의학의 분업적 사고가 한의약

에도 동일하게 취급하여 적용 시키려는 문제가 가속화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 것은 한의약계가 아닌 의료업계와 관련이 있는 이런 단체들이 분업을 조장하여 한의약을 이용하고 한약유통 업체를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더욱 조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 당국은 한의업계의 특성을 충분히 살려주면서 한의약의 미래와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강 병수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본초학

# 보건범죄 양산 소지있어

## 보사부·경실련 약사법안에 대한 입장

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좀더 나아가서는 우리 문화의 전통성과 생활 속에 자라는 민족 유산을 현대 서양적 의료 경쟁의 출속화로 한의약의 바탕을 탈색하여 원형을 잃어버리고 민족 의학의 발전을 말살하는 보건 정책 수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소중하게 키워온 한의약의 계승발전시키는 문제는 적어도 한국 한의약을 세계적 안목에서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한약조제권 문제는 양 단체의 손을 떠나 보사부 정책 안이 국회 안에서 심사, 통과하는 문제만이 남게 되었다.

저자는 본초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 두가지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두고 싶다.

첫째, 치료약의 취급과 한약조제권은 한의약의 특성상 한의사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

다.

한약을 재배한 농가에서 인삼이나 방풍, 더덕을 채소로 이용하면 식품이 되고 말려서 경정제로 병에 이용하면 민간방이다. 이것을 다시 말려서 유통시키면 농수산물이 다.

신라시대에서는 한의사를 보좌하는 기사가 있어서 계절에 맞게 약을 채취하고 법제에 맞게 조제하는 채약사가 있었다.

오늘날 중국에서도 수확이나 판매 제제를

이와같이 한의사의 사회적 역할과 경제적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이상 한의사의 퇴보를 의미하게 된다.

둘째, 금번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대량유급 사태는 학생들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한의사에 대한 약사들의 업권침해와 보사부와 정부당국이 좀더 사정차원에서 냉정한 판단과 역사적 안목없이 그저 사회병태적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행정조치에 대하여 반목과 수렁거부 내지는 유급불사라는 행동을 낳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좀더 세심한 연구가 한약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좀더 시대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한의학을 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좀더 편리한 양질의 처방요를 공급할 수 있는 계도가 마련되어 11개 한의과대학들이 꿈과 이상을 갖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즉 한의약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

만약 보사부와 경실련이 마련한 법안이 한의사의 의견과 제안이 무시된 채 그대로 통과된다면 양자모두에게 법은 있으나 실제 사회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의료법안이 만들어져 한방계가 혼란에 빠지고 나아가서는 전 의료계의 발전과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법안이 되어서는 안된다

는 것이다.

즉 한약사에게 한약취급과 일부 조제권이 있게 된다면 한약사는 한의사의 변증사적 치료행위가 유급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게 되고 한의사는 생업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유급적으로 한약을 취급하는 행위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가정을 할 수 있다.

결국 보건범죄를 많이 양산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특히 11개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향후 사회적 진출이 거의 막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회의 한약조제권 문제는 그 역사적 의미와 사회적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는 점에서 좀 더 냉정한 사정차원의 안목에서 역사적 후회없는 단언이 긍정하게 심사숙고하여 발표되기를 갈망하면서 지금까지 수업을 중단하고 있는 한의대 학생들의 분노했던 의분도 다시 이성적 본분으로 돌아와 곧 수업에 복귀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환경보전의 이상적 방안이 산지를 봉쇄하는 봉산(封山)뿐이다. 지금의 순환도로처럼 길이 뚫리고 자동차가 다니게 되면 자동차는 경사도에 비례하여 배기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산성성이 자라난 밀집주택과 고층건물에서 취사와 난방을 위하여 추가되는 매연은 막을 길이 없다. 어느 것이나 우

모퉁이를 차지한 동국의 캠퍼스에 서 생수공급을 위해 굴착작업을 진행한 일이 있다. 수질분양으로 굴착공을 다시 메꾸어버린 사실이야말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사수에 의해서 오일이 장기건에서 서서히 진행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인간 우월주의에 입각하여 자연지배를 확산하는 것이 아닌 자연보존의 철정임을 알아야 한다. 동시에 둘의 관계를 평등하며 동반자로서 바라보는 동양종교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지혜는 돌이켜서 돌이 아닌 이른바 이이불이(二而不二)사상의 기초위에서만 얻어진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그치지 않고 체내생체와 체외생물이 돌이킬 때 어느 한쪽으로 집착함이 없는 이치(二)가(維二)만이 하나일 수 있다. 또한 이치와 지혜를 터득한다면 허다한 실천이 따르지 않을 경우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남산의 크기로 자부하는 동국인이 가정과 학교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유해한 매연과 폐수가 배출되지 않는지를 점검하고 정화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남산을 살리는 길이다.

오홍석  
(사범대 지교과 교수)

### 사설

## 공정선거를 기대한다

94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후보자 등록이 끝나고 총학생회 후보등록 마감일도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번주부터는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여느선거나 마찬가지로 이번 총학생회 선거는 1년사업의 평가를 학생대중으로부터 받고 다음학년도 사업의 정책을 생산하는 장으로서 그 의미는 자못 크다.

이번 일반론적인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현 정권의 파상적인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생된 사회변혁 운동의 지지기반의 변화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내에 팽배해있는 집단이기주의와 자유주의 풍조에 대한 지적능력은 상실될지 모른다.

사회부조리에 많은 대학인들이 편승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학생회가 대중적 기반을 잃고 있는 현실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이들에게 공동체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를 지우고 있다.

학생회 위기의 담론이 학우대중들에게는 이미 공식화된 인식으로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의 학생회의 전환점이 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계산 거론할 여지가 없다.

선거를 치르는 유권자나 선거운동원 모두는 이번 선거에서 학생회의 퇴보나 전진이라는 갈림길에서 서 있을을 자각해야 한다.

시기의 중차대함을 인식하는 만큼 따라야 할 것은 선거전에 임하는 이들의 자세이다. 예전에 비추어 계파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책보다 앞서있는 타후보 비탄의 선거전은 더 이상 학우들로부터 용납받지 못한다. 선거시기만 되면 난무하는 비난성 발언과 폭력성 대자보가 선거전인양 치달고 감상적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운동원들의 모습은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당리당략 구도에서 유권자는 소외되고 가는 계도적인 선거판과는 달라야 한다는 얘기다. 어차피 선거가 대중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정책보다 앞서 대중에게 제시되는 타후보를 염두에 둔 공약은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야 할 시기에 나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위상과 세칙에 대한 발표는 매우 신선하다.

태고선전과 규정제시권을 제외한 벽면사용을 금하고 후보자들의 선거예산의 공개와 검증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번 발표는 대중과 선거와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하고 있다.

실상 선거자금에 대한 무수한 예측과 소문들은 학생회 신뢰를 갉아먹는 요소를 작용해 왔다.

그러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파열선건전 방지책은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한다.

선거가 끝나고 당락이 결정되면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학내를 오염시키는 선전물 터미널, 무수한 의혹이 제기된 선거 뒷얘기, 우리는 그것을 보지않아도 듣지않아도 될 것이다.

바라건 여건의 성숙은 일단 우리앞에 다가와 있으며 이러한 자세들이 선거에 보여질때 정치적 허무감이 팽배해져 있는 학생들을 투표장으로 끌 수 있을 것이다.

불편화음의 장이 아닌 생활공동체로서의 학생회 건설의 단초로 선거가 자리매김 되길 기대한다.

## 남산환경파괴 실태와 대책

서울에 도음을 정한지 6백년이 되었다. 슬한 영어의 세월을 거치면서 한반도의 통치거점으로 전동을 이어온 것이 서울이다. 그러나 초기적 상황은 성저십리(城底十里)로서 규모를 표현했다. 성 밑이 10리에 펼쳐져있다는 뜻이지만 성 밖의 범위가 북악과 남산등 네개의 봉우리를 연결하는 능선에 한정되었다. 도시가 산으로 에워싼 것이 당시의 모습이라하면, 오늘날의 상황은 뒤바뀌어 남산이란 자연복지가 거대한 도시속에 설치된 강철이었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시멘트의 문명세계에 의해서 푸른 녹지가 용해되는 위험의 국면에 있으므로 제도적 보호를 강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환경은 인간을 둘러싼 주변의 총체적 조건이다. 자연자체가 좋은 의미의 환경이지만 그 속에는 공기, 물, 땅 등 요소가 복합되어 있다. 공기없는 곳에서 숨쉬 수 없고 물없이 건강한 인체를 유지할 수 없다. 더욱이 인간은 창조에 주력하는 영장동물인 이상 땅위에 자라는 농작물을 배제한 채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다. 또한 이들 환경요소가 충족되

었다해도 그것이 청정한 것이 아니고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결국 자연과 인간은 별개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에 있으므로 더불어 공존하거나 공멸하게 된다.

옛 기록에 의하면 남산은 울창한 푸른 숲, 청정한 개울, 아름다운 기

## 경합적 토지개발... 환경파괴 부채질 동국인 정화 앞장서 남산살려야

상을 모두 구비했으므로 상정의 봉우리로 여겨왔다.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만함은 우리 기상일 세라'는 구절도 같은 맥락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곽의 남쪽에 자리한 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민족의 너리에 투영된 환경적 영향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는 최근에 퇴색하고 있다. 조선조 말 3십만명이 못미치던 서울의 인구가 1세기가 지나지 않은 지금 천만명을 넘는데 인구가

는 군사시설이 각각 들어섰다. 모든 시설은 나름의 존재의미를 안고 있다 하더라도 남산전체를 바라볼 때 감시의 의한 자연훼손을 가져온 사실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여기에다 정부 스스로가 송신탑과 전방대를 세우고 순환도로를 만들며 담방객을 유도함으로써 겉으로 주장과는 달리 자연파괴를 서슴치 않은 모순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땅속으로 터널을 뚫는 것도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하지만 환경보전의 근본정

유범으로 투명해야 될 서울의 하늘을 오염의 검은 덮개로 감싸싸우는데 큰 몫을 한다. 오염없는 시민들이 시원하게 바람을 조망권을 맛이고 호흡을 정해하는 일상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대기속의 황산물을 변신시켜 산성비를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내린비는 땅위를 흐르거나 땅속을 삼투하면서 피복식물을 말라죽게 할 뿐 아니라, 지표수와 지하수를 오염시키므로 대기와 수질오염은 서로 연계된다. 얼얼한 남산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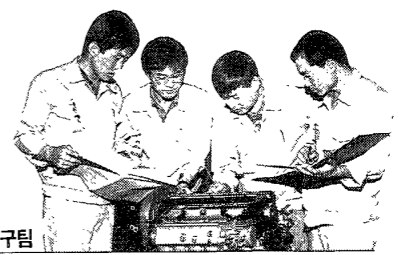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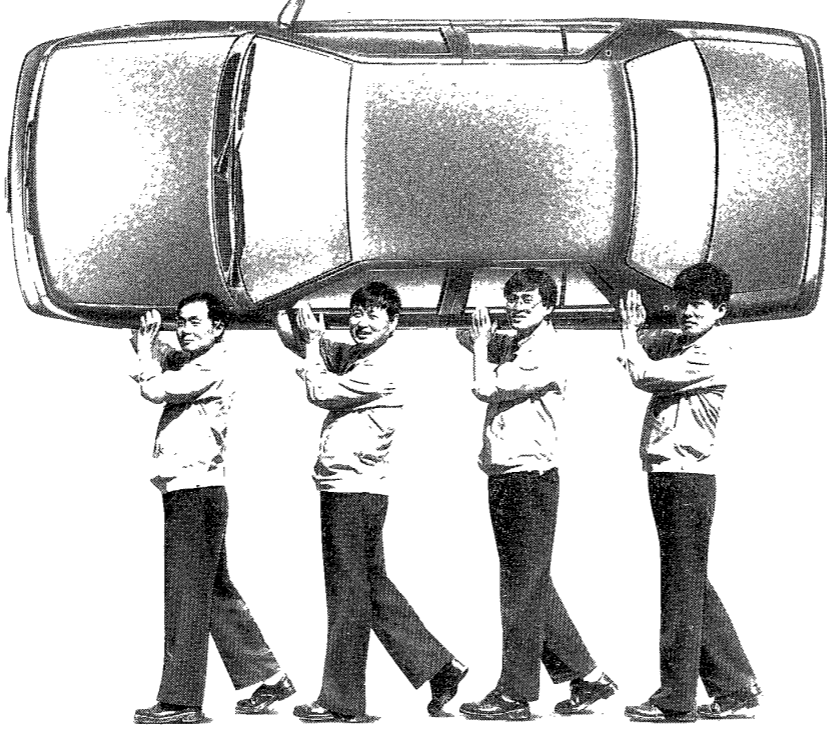
## 東國漫評

김성남



오홍석 (사범대 지교과 교수)

## “자동차의 몸무게를 줄이는 사람들”



승용제품개발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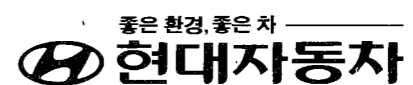
“우리 자동차도 이제 군살 좀 빼야죠. 비만한 사람이 병에 잘 걸리듯 몸무게 무거운 자동차가 연료도 많이 들거니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승용제품개발 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박용현 연구원

이처럼 자동차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더 나아가 수출전선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수출시장에서조차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경우, 수출 판교가 막혀버린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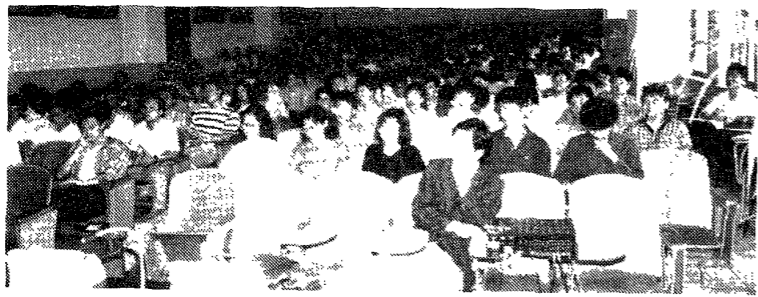
쇠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보다 충격에 강한 신소재는 없을까?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까지 줄었다는 자동차 경량화팀 사람들

무한대의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오늘의 현대맨들이다.









# 유감 제언서

## 조교들은 '통사정'... 학생들은 '어물쟁'

### 학칙있어도 취직에 밀려 유명무실 강력한 교육지도-당사자 분발 병행돼야

#### 선배들의 노력

나는 복남의 어느 수산중학교에 처음 입학했었는데, 거기서는 중학교 졸업기념으로 누구나 단편소설을 한편씩 써서 내야한다는 엄중한 전통이 있었다. 지금같은 말도 안돼 보이는 듯하지만, 입학해서 그런 사실을 알고 무척 자랑스럽고 가슴 뛰었던 기억이 지금껏 생생하다. 6·25 민족전쟁으로 그 전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늘 이런 추억에 그치고 있는 것이 사뭇 아쉽다.

1930년대 초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국학운동이 절기처럼 일어난 시대에 김태준의 '조선 소설사'나 김재철의 '조선연극사', 정어식의 '조선창극사'들이 대학의 졸업논문으로 쓰여진 책들이란 말을 듣고 충격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껏 생생하다. 아마도 우리 스승이시던 양주동 선생님께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일본의 저명한 동양사학자 島田廣次의 대명학 '두자학과 양명학은 우리나라

에도 번영되었지만 책이 자신의 대학 졸업논문을 읽고 보면 것이라고 발문에 써있어서 놀라웠다. 그는 지금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이 책에 쓴 졸업논문 이래 자신의 학문적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쓰고 있었다. 이렇게 전 시대 사람들의 대학 졸업논문은 격이 높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대학들의 졸업논문 제도의 현실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진다.

#### 암울한 현실

졸업논문은 계절이 다시 돌아왔는데 논문이 안걸린다. 이때가 되면 각 학과의 학과장과 조교, 그리고 관련된 조교수들은 논문을 내는 사람 못지않게 한바탕 흥을 치르며 마련이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흥이면서 나아질 기미는 아득하다. 어쨌든 정한 제도에도 논문을 내야 할 당사자들도 도무지 논문에 성의를 기울일 여유를 갖지 못하는 것이 취직경쟁에 밀리는 오늘날의 현실이다. 4년간 나름대로

가르치고 공부해온 대학교육의 보람이 졸업논문을 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마저 없지 않다. 학교나 학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졸업논문의 문체는 바로 오늘날 우리 대학사회의 문제점을 한마디로 증언하는 단적인 보기가 할만하다. 졸업논문 제도가 철저히 시행되고, 기발한 논문들이 온 나라의 화제가 되는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칙에 따르면 분명히 졸업논문에 통과하지 않고도 졸업할 수 없다고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졸업과 학위를 규정할 학칙 제55조에는 대학이 정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논문을 내야 한다고 했고, 제56조에서는 전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준다고 되어 있다. 또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수료증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한 시행규정이 다시 장황하고 엄격하다.

그런데 규정한 엄격할 뿐 정작 졸업논문을 내야 할 당사자들이 전혀 논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학과장과 조교는 학생들을 따라다니며 논문 줄 내라고 사정사정하는 현실이고, 제도는 만들어져 있으나 학점 인정도 안되고 논문지도 제도도 없으며, 형식이 매이 있다. 혹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 엄격히 지도하고 발표되도 갖고 논문 집까지 내는 곳도 있는가 하면, 대개의 대학과 학과들에서 서로 배겨내기 경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거짓말을 가르치는 일이며 대학교육의 심각한 위기를 반영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 나이감 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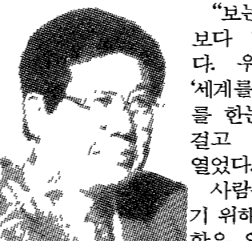
우리는 학과 나름대로 개선의 방식을 여러차례 논의했다. 우선 정식 학점교과로 만들고, 전과와 학생들 앞에서 논문을 발표를 하는 방식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1백40학점으로 어느새

졸여진 단위를 다시 졸업논문 학점으로 깎아낼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반대로 1백40학점에 졸업논문학점 3~6학점을 늘리는 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이것 또한 학교과정에 이어져 있어 현실성이 문제된다. 결국은 있는 제도를 효과적으로 살려가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논문을 쓸 당사자와 학과와 교육부 모두가 분발이 있어야겠다. 머리말에서 보기를 보였듯이 학생들이 학창시대를 보냈다고 마감하는 '작품'을 내주기 바란다. 졸업논문은 적당히 써내고는 졸업은 할 수 있도록 학교로서는 강력한 교육지도가 돼야하고, 학생들도 스스로 인생의 첫 번째 뜻을 피우는 '장조표'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졸업논문이 일생의 한 이정표가 되고, 생애의 기념이 되도록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태준  
(경대대 국문과 교수)

## 인간주의 최영래

(자연대 생물학과 교수)



“보는 것은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우리는 열마천 세계를 한곳에, 미래를 한눈에란 표제를 걸고 대전엑스포를 열었다.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해, 과학이 존엄함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인간은 인간의 역사와 행보가 일치하는 과학문명과 정치문화를 끈질기게 개척하고 다져나가게 된 것이다. 문화를, 사람이 나서 걷고, 잡고, 일하며, 생각하고 사랑하며, 무정하고 타협하며, 죽고하는 모든 일이라고 규정된 멕시코의 Alma 같은 평론가도 있다. 우리는 어머니로 부터 반응과 포용을 받고, 아버지로 부터는 질책과 엄격이 공존하는 정신세계를 지나오면서, 지난날의 생활에 쫓겨가고, 새것을 창조해 나가기도 해왔던 것이다. 오호, 세계는 대담과 갈등에서 보다 낫은 조화와 협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탈이념(脫理想)시대, 탈국가(脫國家)시대, 탈도시(脫都市)시대에서 차츰 과학적인 인간주의 시대를 모색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인간의 목표는, 생명을 존속해 나가고 진화시켜 나가는데 있는 것이다. 만일의 경우, 지구상에서, 인간생명의 단절이 생겨났을때, 인류가 무슨 의미를 부여 받을 수 있었을까. 코로, 사람의 마음은, 인간을 다져 나가고 그 진전(進進)의 방향을 결정지워 주는 주

요한 인자(因子)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활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폭넓은 이해와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점차 비슷한 문화모습으로 닮아 가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하나의 문화권 같은 인상이 되었고 일본도 미국과 비슷하게 됐다. 그러나 열대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원시림이 뿔뿔이 썩어가는 생각속에 사는 아프리카 인은 다르다. 흑인족(Ebony)을 대표한 마콘데(Wamako)족들의 조각상(彫刻像)으로부터 그들을 더욱 피세길 수 있다. 황무지를 일구어 온 농부들의 끈질긴 생명력만 인간성에 대한 표상(Emblem)이 우리의 심장을 더욱 박동하게 한다. 오호, 손에는 팽이를 들고, 열구리에는 물통을 찬 약간 꾸부러진 농부의 목걸이를 하고 왼쪽허리에겐 애기를 뽐여낸 그 아내의 모습에서 인간공명의 내성(內省)을 읊게 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목적은, 인간생활을 합리화하고 순리화 하는데 있다. 코로 모든 인간생명은 필연으로 과학적 인간주의를 모색하고 인간존중 인권을 회복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종교란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인간이 지신(至善)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과거에는 종교의 힘에 의해 살았으나, 현재는 기술과 국가의 힘에 의해 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황·적·백·흑의 어느 인종이든, 손에 손잡고 머리의 심장을 맞대면서, 서로 존중하고 실존하면서 합리, 인간주의를 활약(活活)시켜 지구촌을 보다 복되고 번영되게 함께 살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 읽을 수 없는 환경의 책 '쓰고싶다'는 욕구 일깨워준 작품

### 레마르크 '개선문'

내가 처음으로 읽은 레마르크의 소설은 '개선문'이었다. 세계 제2차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1937년과 1938년의 파리를 배경으로 해서, 국적까지 잃어버린 채 떠도는 피난민들의 삶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이 소설은, 고등학교 1학년 생인 나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개선문'은 인간의 영혼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세계대전과 전체주의적 공포정치의 위협속에서 인간의 낙담하기 짝이 없는 영혼이 어떻게 상처 받고 쓰러져가는지를 전인할 정도의 냉정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베를린에서 이름을 떨치던 의과사 라비크 그는 연인을 비롯한 모든 것을 게슈타포에게 빼앗겨 버리고 파리에 불붙어 입국하여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살아가던 그는 새로운 연인인 슬림의 하급간수인 조양마 두이고, 그의 절친한 친구는 나이트클럽 세라자의 도어맨인 모로소프다. 또 그가 즐겨 마시는 술은 최하급 과일주인 캄바도스다. 또 그의 생활비는, 무능한 의사를 대신해서 마취된 환자를 수술해 주고 받는 돈으로 꾸려간다. 이렇듯 최상급에서 최하급으로 떨어진 그의 생활을 버려주고 있는 것은 오로지

게슈타포인 하케에 대한 복수심이다. 그러나, 정작은 그가 감당해야 할 불행은 그토록 별다른 복수를 하고 난 뒤부터라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이 소설은 끝난다. '개선문'을 읽고 나자, 그때껏 내가 읽은 전쟁을 소재로한 소설들이 모두 하잘것없이 여겨질 정도였다. 당시의 한국 소설들이 '비뢰관'이나 '국방군'을 들먹여 댔고, 미국 소설들은 '인디안과 남북전쟁' 정도를 그리고 있었으며, 일본 소설들은 '대화혼'과 '사미센기'라 속해 빠져서 해고도 있었다. 내가 그책을 읽었을 때는 초보였다. 지금도 나는, 나무들의 이파리가 아직은 보았듯이 있었다는 것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게슈타포에게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데서 오는, 어딘가에 살듯 외로운 듯한 느낌으로 고통받고 있던 때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돌아온 뒤 12년이 지났을 때, 나는 반전소설인 '탄흔'을 내용으로 써 본격적인 소설 발표를 시작했다. 그뒤에 내용은 '황색인'이며, 내년 봄에 내용을 '야' 남지나 해도 내가 레마르크를 그리워 하면서 쓴 소설들이다.

이상문  
(소설가·국문 74쪽)

## 社告

### 제8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1993년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이끌어 나갈 젊은 文才를 발굴 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8회 동대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60매 내외(200자원고지 기준)  
 평론부문: 60매 내외(200자원고지 기준)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제출기간:  
 1993년 11월 8일(월)~12일(금)

◇심사:  
 \*시 부문...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문...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평론부문...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여 임명되며 함께 발표

◇입상작 발표: 1993년 11월 24일과 동대신문 紙上

◇작품 제출처: 본사 총무부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동대신문사

## 조점 '금강경 연해 주해' 출간

### 국어사의 귀중한자료 엮어 교수·박사과정 동학 함께 쓴 '훈훈한 책'

금강경은 동국대학교 내 동학이 문화회에서는 학술총서 제2집으로 '금강경연해 주해'를 내놓았다. 이 책은 20여년도 불학기 김영배 교수님의 국어학 전공 박사과정과 과제를 여섯 사람(김부흥, 노환진, 육우창, 이유키, 장영진, 정우영)이 주해를 분담하고, 해제와 색인을 붙여 한 권으로 엮은 것이다. 동학(同學)들이 모여 각자 연구한 바를 토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본 것은 요즘같은 개개인의 불신공조가 평범한 풍토에서 학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세 초 10년(원순 8년, 1464) 간경도에서 간행한 불경 연해서로 원명은 '금강반야 비라밀경연해' 또는 '금강경연해 주해'이다. '금강경연해'는 간경도에서 간행한 다른 불경 연해서들과 함께 국어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서 국어 표기법의 변천을 살펴볼 때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연구업적이 보이지 않았는데, 마침내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의 동학들이 힘을 모아 '금강경연해 주해'를 내놓았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점에서 본서는 우리 학계의 소중한 업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현재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안상사본은 1933년에 다시 수보 간행한 안상사 판본의 복각본이기 때문에 오자와 탈락자

및 마모된 부분이 많아 그동안 자료의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금강경연해안상사본의 오자, 탈락자 등을 바로 잡고, 마모된 부분이나 해독이 어려운 부분을 복원한 '금강경연해(안상사본)교정 일람표'가 붙어 있으므로 안상사본을 이용하는 동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 책은 국어표기법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 뿐만 아니라 불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커다란 지침서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영국  
(경대대 강사)

**GoldStar**

5년 전만해도, 우리가 이런 제품을 개발해 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생활의 질을 높이는 금성의 新가전

여러분은 혹시, 5년 전에 이런 일들을 상상해 보셨나요?  
 TV와 VCR, 컴퓨터, 오디오, LDP가 하나의 기기로 통합되고, TV에 CD를 넣어 음악을 감상하고 노래방을 꾸미는 일들—  
 금성이 새롭게 선보이는 新가전은 생활속에서 정보처리까지 가능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형 가전제품들입니다. 생활의 질을 끝없이 높여 주는 금성의 新가전시리즈— 이제,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CD-I 플레이어**  
 TV, VTR, LDP, 오디오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한 데로 모아진 가전용 멀티미디어

금성의 新가전 시리즈— 생활의 변화를 제안합니다

**CDG-TV**  
 TV와 CDG 플레이어까지 하나로 합쳐진 TV만으로 음악감상을 하고 노래방까지 꾸릴 수 있는 복합형 가전용 TV

**WIDE VISION**  
 16.9의 극대스크린 비율로 영화관의 같듯과 분위기를 그대로 전해 줄 차세대 대형 TV

**AVEST**  
 오디오 TV, VTR, 스피커가 서로 대화하며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신세대 A/V



